

음식물 쓰레기 하루 441t 쏟아져... 광주 '김장철 골머리'

하루 처리용량 450t 육박... 월요일엔 600t이나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 광주지역 각 구청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량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 음식물 쓰레기 '대란'(大亂)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어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택가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예상량이 광주지역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410t보다 7.5%

(30.8t) 증가한 440.8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공공 1 음식물자원화시설(하루 처리용량 150t)과 서구 유덕동 공공 2 음식물 자원화시설(300t)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량 450t에 육박한다. 하지만 올해 김장을 직접 담그겠다는 가구 비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6%p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설문조

주말 쓰레기 월·화 나눠 처리

구청마다 악취 민원 잇따라

본격 김장시즌 12월이 더 걱정

사 결과를 감안하면 자칫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지 않는 주말 쓰레기가 급증, 다음날인 월요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평일

보다 200t 가량 늘어난 600t에 달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각 구청의 경우 자원화 시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량을 감안, 주말 배출된 쓰레기를 월·화요일로 나눠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는데 따른 미관·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구청은 주민 민원 해소 위해 휴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작업도 고민했지만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

황이다.

광주시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배출 사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한 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시는 각 구별로 기동처리반을 운영,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배추 겉잎과 무 잎은 국거리용으로 재활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잘게 썰거나 말려 내놓는 등

가급적 부피를 줄여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간을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일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반입량을 30% 가량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0t 가량 줄어 다소 여유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본격적인 김장 시즌인 다음달"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0t 가량 줄어 다소 여유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본격적인 김장 시즌인 다음달"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9027) 김장독



원름에 사행성 게임장 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주택가 원룸을 임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한 혐의의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A원룸 1층을 임대해 PC 19대를 들여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인 '얼라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사위 생일선물 사라졌다 지갑 '슬쩍'

○사위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60대 중국인 여성이 지갑을 훔쳐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여·65)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한 명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26만원짜리 남성용 반지갑을 훔쳤다는 것. ○딸의 초창으로 2달 전 한국에 온 A씨는 이 날 생일을 앞둔 사위(41)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함께한 가족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갑이 반짝반짝해 탐이 났다"고 말해 가족들도 당황.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유출 부당한 사람은 누구?

검찰, 불법유출 확인

검찰 수사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하나둘씩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점도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자로 의심받은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OK민원센터'의 상급책임자인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구청 감사담당관인 임모 과장의 사무실과 그의 신체가 수색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 국장이 어디선가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같은 강제 수사에 나섰다. 3개월 후인 9월 6일 조 전총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했으며, 이튿날인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구청에 찾아와 등록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채군의 학적부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인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국장이 해당 정보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시민 단체의 고발내용 중 외부에 개인정보 유출한 '신원 불상의 전달자'를 조 국장으로 특정하고 조만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행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은) 조 국장 혼자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더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이 채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시점이 지난 6월이라는 점과 고려하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현재 검찰은 조 국장 등 서초구 관계자들의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조 국장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에 대해 알아볼수 있느냐고 한 것 말고 구청에서 열람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는지,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나한테 줬는지, 어떤 형태로 열람했고 열람한 내용이 누구한테 갔는지 등은 이야기할 수 없다. 수사 중이므로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성폭력 추방” 광주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 여성긴급전화 1366은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2013년 여성·아동 폭력피해 추방 주간'을 맞아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동산 다툼에 친족들 폭행... 60대 징역 15년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문제로 양심 품고 친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6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번 기간에 가스총 등으로 나이 많은 여성 3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복수를 얻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충격이 상당하고 단기간에 치유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9월 조카며느리인 김모(64)씨의 집에서 김씨와 숙모(74), 사촌(여·54)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철사와 끈으로 손발을 묶은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에는 가스총, 연탄집게, 프라이팬, 옷걸이, 철사 등 수많은 흉기가 동원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관위, 박창신 신부 인용 '부정선거 백서' 저자 고소

중앙선관위원회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사에서 인용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자의 저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시국미사에서 이 책자를 인용해 "컴퓨터로 개표 부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직

원 8명은 지난달 19일 이 책자를 퍼낸 저자 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박 신부는 시국미사에서 "백서를 읽어보세요.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선거를 했어요. (중략) 이렇게 해서 우리 살림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 지에 우리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두레유류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